

(인도자용)

행복의 역설 “팔복” 3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마음열기

콜센터 직원과 진상고객...

제 친구는 모 통신회사 콜센터에 3년간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3년간 일을 하면서 일에 회의를 느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회사를 관두던 날...그날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콜이 마지막이다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꾀발 안 좋게 진상고객이 걸린 겁니다. 그 진상고객은 욕두문자를 섞어 가며 소릴 질러댔습니다.

"야 너 머야 이 미친X야 일처리를 왜 이따위로 해 이 미친X야!"

그 직원 3년간의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이 진상 고객한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진상고객은 계속 그 직원한테 "야 이 미친X야" 이러면서 계속 욕두문자를 섞어가며 소리를 질러댔죠... 그래도 고객한테 화를 낼 수 없었던 직원은 계속 웃으면서 상대를 했습니다. "예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실수가 있었던거 같네요.."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미친X야 "

"고객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30분을 그렇게 웃으며 진상고객과 통화하던 그 직원에게 진상고객이 물었습니다..

"야 이 미친X야 너 이름이 머야" 내가 당장 찾아갈 테니까 너 이름이 머야 미친X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네..저는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미~친~X~입니다..."(콜센터 직원말투...)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은 전화를 끊자마자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가버렸고 그 다음날 그 욕두문자의 진상고객이 콜센터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고 이미 퇴사한 사람 찾아서 콜센터까지 왔는데 직원이 없으니 욕두문자를 날리며 나갔습니다. 지가 어쩔 겁니까 직원이 퇴사했다는데~~ㅋㅋㅋㅋ

 당신이 겪었던 최악의 진상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생각해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진상을 부러본 적이 있다면?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민수기 16:1-6

1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며, 고핫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형제로서 엘리압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온은 벨렛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2 이 네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이백오십 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3 그들은 무리를 지어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요.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요?"

4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5 그런 다음에 모세는 고라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의 사람인지를 보여 주실 것이요. 그리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도 보여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가 뽑으신 사람만을 여호와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6 그러므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향로를 가져오시오.

민수기 16:12-15

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13 당신은 젖과 꿀이 넘쳐흐를 만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내어 죽이려 하고 있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있소.

14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넘쳐흐를 만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소. 밭과 포

도밭이 있는 땅도 주지 못했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뿔을 생각ियो? 우리는 갈 수 없소."

15 모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한 일이 없습니다."

☞ 본문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1-2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이백오십 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 사람들은 왜 모세에게 반역했습니까?(3,13-14절)

☞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누군가로 인해 좌절을 경험한 사건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그때의 심정,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등등

☞ 자신에게 반역을 한 무리들에 대한 모세의 감정은 어떠했고, 그들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4,15절)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민수기 12:3)

모세의 감정 : 모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15절)

모세의 반응 :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4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15절)

비겁함? 무능력함? 착함? 무기력함? 최소한 진상은 아님? 바보같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 12:3)

☞ 하나님은 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래의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뜻을 읽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유함과 당신이 생각하는 온유의 차이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그리스 원어로 표현된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온유는 약함이 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라이 오스'라는 단어도 같은 뜻을 가지는 단어인데 과격함을 피하면서 균형 있게 힘을 행사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약함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절 되는 강력한 힘이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온유하다고 부른 이유 : 모세는 자신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충분히 응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린 것,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 제어된 힘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유 : 제어된 힘, 겸손함, 마음을 다스림, 통제되는 능력, 과격함을 피하면서 균형 있게 힘을 행사하는 것

2. 아래 글을 읽고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을 무어라 소개하고 있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일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 37:11

성경은 온유한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소개한다. 여기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 1세대 유대인들은 이탈리아나 갈리아 지방의 땅을 소유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 땅의 살롬을 원했을 뿐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유배와 귀환, 소망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했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평화롭고 거룩하게 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받을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함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롬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것과 비록 많진 않지만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살롬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 살롬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 복은 바로 이 살롬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적용과 결단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온

유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나약하고, 모자라고,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썩 좋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유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이란 힘없고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정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을 못해서 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우유부단함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늘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때부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모세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답게 만든 것은 온유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소유한 온유함은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옹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모세를 질투하고 시기하여 반역을 도모한 고라 자손의 악행과 시도 때도 없이 불멘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백성들의 원성 속에서도 모세는 그들의 모든 반응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옹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이끄는 건 모세 자신이 아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시며, 결국 가나안까지 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저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 자리에 그저 옹드릴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으며, 물을 내기 위해 바위를 치며 혈기를 내기도 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타고나는 것도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자요 선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를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품 “온유함”을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온유함이 발휘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기도